

“제주항공 참사 위로합니다” 전국 지자체 기부 행렬

경북·서울·강원 등서 21억 답지... 전 세계 호남향우들도 애도 전남도 “유가족 곳곳에 일상 되찾도록 사고 후속 조치 최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해 유가족은 물론 도민과 국민까지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잠긴 가운데, 그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한 기부 행렬이 이어져 9개 시도에서 21억원이 모아졌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31일 경북도와 부산시가 제일 먼저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지정기부처를 통해 기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남도와 다양한 분야에서 영호남 상생협력사업을 펼치는 경

북도는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북대표단을 꾸려 사고 현장을 찾아 희생자를 조문하고, 경북도 재해구호기금으로 마련한 성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1월 1일엔 역시 전남도와 광역상생협력에 이어 가고 있는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가 무안공항 분향소를 찾아 사고 희생자를 조문하고, 재해구호기금으로 마련한 성금 5억원을 쾌척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실의에 빠진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 2일 경남도는 박명균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남도대표단이 무안공항 분향소를 찾아 2억원을 지정기부처에 맡기기로 했다. 박명균 부지사는 “경남도의 지원이 고통을 겪는 유가족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와 전북도도 각각 5억원과 2억원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별도로 1200만원 상당의 의약품도 전달하기도 했다. 3일엔 강원도와 울산시가 각 1억원, 충청도가 2억원을 회사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사고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유가족과 도민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성금 기탁

을 결심한 사·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위기를 위기로 끝내지 않기 위해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유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일상을 되찾도록 사고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강원도 강릉 산불 1000만원, 경북·강원 산불 2000만원, 강원 동해안 산불 1000만원, 광주 동구 건물 붕괴사고 500만원 등 타 시·도의 대형 재해마다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성금을 지원해왔다.

국내외 호남 향우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슬픔에 잠긴 유가족과 지역사회를 위로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시도민회와 전국

호남향우회 등 주요 출향 향우 단체는 무안 합동분향소를 찾아 애도했다.

이들은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약정하기도 했다.

미주 호남향우회는 미국 주요 도시 6곳에 추모 분향소를 설치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오거스타, 시카고, 휴스턴에 설치된 분향소에는 한인 동포와 지역 주민들이 찾아 희생자를 애도했다.

캐나다와 독일, 일본, 중국 등 세계 각지의 호남향우회도 조화와 성명 등을 통해 연대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독감 조심하세요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으로 독감 의심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7일 광주시 북구의 한 아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11일 ‘화정아이파크 붕괴’ 3주기 추모 행사

신축중인 아파트가 무너져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작업자 6명이 숨진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3년을 맞아 추모식이 열린다.

화정아이파크 희생자가족협의회는 오는 11일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철거·재시공 현장에서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 3주기 추모식’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추모식은 2주기와 동일하게 아파트 2단지 지하(6번 게이트 안쪽)에서 열린다. 분향소는 당일 오후 1시부터 개방한다.

추모식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30분에 걸

쳐 간소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안정호 화정아이파크 희생자가족협의회 대표는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마음이 아파서 뉴스조차 제대로 못 볼만큼 힘들었다”며 “한번 아픔을 겪었던 화정아이파크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어지길 희생된 이들의 뜻이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정아이파크는 오는 202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재시공 중이다. 단지명은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로 정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코레일, 설 승차권 8~9일 온라인 예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본부는 “8일부터 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설 승차권 사전예매를 접수받는다”고 7일 밝혔다.

예매 대상은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운행되는 KTX, 일반열차 등 전 열차다. 일반 고객과 교통약자 등 모두 예매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8일에는 경부·경전·동해·충북·중부내륙·경북선을, 9일에는 전라·호남·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을 예매할 수 있다.

예매 기간 예약한 승차권은 9일 15시부터 12월 24시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하며, 결제기한 내 미결제 승차권은 자동 취소돼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게 우선 배정된다. 잔여석은 오는 9일 15시부터 역창구·홈페이지·코레일 톡 등 온·오프라인에서 상시 발매할 수 있다.

한편 코레일은 올해 설 연휴 기간 동안 승차권을 예매한 뒤 ‘노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강화된 위약금 기준을 적용한다.

당초 위약금은 출발 1일 전까지 400원 수준이었으나, 설 연휴 기간 동안은 출발 2일 전까지 400원 위약금을 받고 출발 1일 전까지는 취소 시 영수 가격의 5%를 받는다. 또 출발 3시간 전까지 10%, 출발 직전 20%, 출발 후 20분 30% 등 탑승 취소 시점에 맞춰 위약금을 상향 적용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 겨울의 ‘두 얼굴’

평균 기온 2.8도로 따뜻하지만 적설량은 전국 2위

전남지역 겨울은 따뜻하지만 눈은 많이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연구원 “전남 지역의 겨울철(12~1월) 기온은 전국 4번째로 따뜻하지만, 적설량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눈이 내린 횟수 역시 전국 3위를 차지했다”고 7일 발표했다.

기상자료개발포털 자료를 분석한 연구원은 지난 30년(1994~2023년)간 전남의 겨울철 평균 기온은 2.8도로 제주(7.1도), 부산(4.9도), 울산

(3.7도)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광주는 2.5도를 기록했다.

반면 최근 10년(2014~2023년)간 누적 적설량은 전남이 약 8m로 아파트 2.5층 높이에 달한다. 강원 16m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많은 기록이다. 광주는 4.3m, 전국 평균은 3.3m로 분석됐다. 최근 10년간 전남에는 153일 눈이 내려 강원(270일), 인천(211일)에 이어 전국 3번째로 자주 눈이 내렸다. 광주는 121일 눈이 내렸다.

전남 시·군 중 한파특보가 가장 많이 발표된 지

역은 구례에 최근 10년간 59회의 한파특보가 발표됐고, 곡성(56회), 화순(48회), 담양(47회) 순이다.

연구원은 내륙지역이 해안지역보다 한파특보가 더 많이 발표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파특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면서 평년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혹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이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김현희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수도권 폭설과 같이, 겨울철 다설지인 전남에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이례적인 수준의 폭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노동청, 설 명절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 운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광주노동청)이 설 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7일 광주노동청에 따르면 임금체불 피해를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오는 24일까지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이와함께 체불신고 전담전화도 개설해 노동자

들이 근로감독관에게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 임금체불액이 고액이거나 체불 노동자가 많은 경우에는 청장이나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 정산을 지도하고 악의적·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강제 수사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